군종주보

2026년 9월 13일(제1317호) 연중 제24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그래.. 너도.. 나도.. 참 가엾다. 그지??”

마태오 복음서의 저자는 18장에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다섯 가지 규범을 말해줍니다. 이를 흔히 ‘교회 공동체의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가지 규범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첫째, 겸손이 주제인(18,1-5), 둘째, 죄를 짓지도 짓게도 말라는 주제(18,6-9), 셋째, 작은 이들을 섬기라는 주제(18,10-14), 넷째, 죄지은 형제를 사랑으로 충고하라는 주제(18,15-20), 다섯째, 오늘 복음인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주제입니다(18,21-35).

마태오 복음서 집필 당시 저자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관련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관해 유연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상반된 입장은 당연히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켰고, 자신과 다른 입장의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심판하기에 이르렀지요. 분열과 반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교회 분위기 안에서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18장의 내용이 써졌고, 오늘 복음 내용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살펴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죄의 용서에 대한 횟수를 물어봅니다. 성경 안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녁에서 벗어나다’를 뜻하는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도덕적·종교적 죄)’와 주님의 기도 중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때 사용된 ‘오페이레마타(ὀφειλήματα=영적 채무)’입니다. 죄(하마르티아)에 대한 용서를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탕감받는 종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종이 임금에게 빚진 채무는 만 탈렌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십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사실 이 빚은 일차원적으로는 돈이겠지만, 주님께 받은 무한한 자비와 용서의 크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가엾은 마음입니다. 원문에서는 ‘스플랑크니조마이(=σπλαγχνίζομαι)’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직역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입니다. 수십조에 달하는 빚을 가엾은 마음이 든다는 이유로 기한을 늘려주는 것도 아닌, 부채 자체를 없애주는 임금의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멱살을 잡으며 채무를 이행하라고 겁박하고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마태 18,33)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분노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세상에 그 분노를 뱉어내곤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속하지 않는 외집단을 너무도 쉽게 악마화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런 우리와 당시 마태오 복음서 저자가 속해있던 공동체의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가엾은 마음을 지니길 요청합니다. 가엾은 마음, 이것이 주님께 진 빚을 탕감하는 길이고, 과녁에서 벗어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의 입장과 생각에 매몰되어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를 가엾이 여기며 응원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조현우(블라시오) 신부
용성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집회 27,30-28,7
화 답 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제 2 독 서	로마 14,7-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 음	마태 18,21-35
영 성 체 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2) 태릉에서의 신앙생활

1954년 6월 21일, 육군사관학교는 진해에서 태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나 교육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육군사관학교의 군종활동도 활성화되었다. 1954년 7월 7일 최창규 신부가 육사성당의 초대 신부로 부임하였다. 최 신부는 부임 후 4일만인 7월 11일 성당 건물이 없었기에 생도 내무반 근처의 길에서 첫 번째 주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탁자 하나로 제대를 꾸미고 긴 의자 두 개를 놓고 미사를 집전하였는데 20여 명이 미사에 참례하였다. 이렇게 육사본당의 첫 미사는 노천에서 봉헌되었다.

최 신부는 먼저 성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던 중 미 고문관들이 철수한 후 독신 장교 숙소로 사용되던 콘세트 건물 하나를 학교본부에 건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았다. 육사성당으로 처음 사용된 이 콘세트 건물은 지금의 청헌당 자리에 있었다. 최 신부는 20여 평의 이 건물의 가운데를 막아 한 쪽은 성당으로, 다른 한 쪽은 제의실과 사무실 겸 사제관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콘세트 건물이지만 성당을 마련하게 되자 생도들의 신앙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육군사관학교 인근의 태릉과 신내동, 갈매리 지역의 신자들도 주일미사에 20~30명이 참여하였다.

2. 해군의 천주교 군종활동

1) 해군 군종활동의 시작

1945년 8월 15일 해사대로 출발한 대한민국 해군은 초기에 기구 확장과 증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확보, 그리고 사업의 수행에 따르는 경제적 뒷받침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아울러 장병 개개인의 정신상태가 시대적인 요청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도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

『천주교 군종교구사(군 사목 50년사)』 발췌, 천주교 군종교구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고민할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한 번 더
돌아보면 된다.

그냥, 딱
눈앞에 놓인
이번만을 생각하자.

고민할 것 없이
한 번 더
안아주면 된다.

그럼 넘어가 줄 수
있을 것이다.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종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반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청곡 가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종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청 시 소정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과 살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머문 시간은 행복했다.
성탄 전야에 산동네와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같은 곳에 기쁜 마음으로 찾아간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다. (중략)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수녀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난지도 쓰레기장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다. 그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수녀들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 번 가봐야지'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더구나 내가 가서 가난한 사람들 손 한번이라도 잡아주면 큰 힘이 된다고 하기에 늘 기쁜 마음으로 그런 현장을 찾아다녔다.
나 역시 그들의 꺼칠한 손을 잡아줄 때는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 삶 속에 하느님이 머물러 계셨기 때문인 것이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가톨릭평화신문, 2007) 중

▲ 목동 재개발 지역 방문(1975.05)

가난한 이들을 향한 김수환 추기경님의 애정은 참으로 각별했습니다

잠시라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 머문 시간이 행복했다고 고백하신 추기경님은, 그 곁에 머무는 것이 곧 하느님께 다가가는 길임을 아셨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셨습니다. 첫 주임 신부로 부임한 안동성당에서는 6·25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가난에 시달리던 신자들을 발 벗고 도우셨습니다. 그 시절을 두고 추기경님은 "꿈처럼 아름다웠다"고 회고하실 만큼,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아픔을 나누며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자 애쓰셨습니다.

「바보의나눔」이 이어갑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여주신 가난한 이웃을 향한 마음을 이어받아, 「바보의나눔」은 인종·국가·종교·이념을 넘어 차별 없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나눔은 홀로 남겨진 아이, 병상에서 외로운 어르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엄마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전해집니다.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나누시며,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곳의 이웃을 섬기신 추기경님의 발자취를 따라, 「바보의나눔」이 소외된 이웃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 주세요

정기기부 신청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바보의나눔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4주일: 인천해군 신현빈 신부

◆ 교구장 동정

- **용성대(제20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13일(주일)
- **국장회의 / 사제평의회의 / 참사회의**
  때·곳: 9월 15일(화), 교구청 회의실
-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
  때·곳: 9월 15일(화) 16:00, 군종교구청

" '작은 가정교회' 를 이루는 본인성사의 해"